

**창제**  
아침에는 ARKO 한국창작음악위원회 브랜드입니다.

음악은 창작의 역사입니다.  
창작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데 왜 끊임없이 계속될까요?  
바로 그 음악을 듣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가 담아낸 오선지의 음표는 당신이 듣는 순간 비로소 음악으로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객석의 변화가  
창작의 역사를 바꿉니다.

# MAKE A CHANGE MAKE A CHANGE

**국악부문**  
2014.11.29(토) 2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연주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지휘 권성택, 원영석

강순미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김대성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슬픔의 강'  
민영치 ODYSSEY  
박병오 7인의 생황주자(奏者)를 위한 국악관현악 '균(均)'  
신동일 국악관현악을 위한 <Sinfonietta No.1>  
이귀숙 해금협주곡 '탐매(探梅)'

**공연티켓 신청방법**

- 1 티켓은 무료이며, 1인당 4매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 공연 관람질, 신청 티켓 수, 연락처, 이름을 신청제 메일(music@arko.or.kr)로 보내주세요.
- 3 공연당일 티켓박스에서 신청자 이름으로 수령하세요.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문의 및 예매 ☎ 02 3674 7635 페이스북 www.facebook.com/musicarko1 블로그 blog.naver.com/musicarko

**창제**  
‘최소 10년은 바라보고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는  
기치아래 우리나라의 국악, 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특성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해금협주곡 '탐매(探梅)'**  
‘Tam-mae’ for Haegeum and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작곡신조 \_\_\_\_\_  
나 자신을 넘어서다

프로필 \_\_\_\_\_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작곡 박사  
안익태작곡상 대상 및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수상  
2011년 국립국악원 창작관현악 3회연속공모 당선  
2012~2014년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관현악 3회연속공모 당선  
2013년 제32회 대한민국작곡상 한국음악부분 최우수상 수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Ensemble Collabo 대표

작곡 배경 \_\_\_\_\_  
김시습의 탐매(探梅)연작시 14수

작품 해설 \_\_\_\_\_  
이 작품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14수 연작시 '탐매(探梅)'를 기반으로 작곡되었다. 조선초기의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김시습은 “매화 핀 경치를 찾아 구경함”이란 뜻을 지닌 자신의 14수 연작시 “탐매”에서 매화를 통한 자연의 탐구뿐만이 아닌 시대와 불화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결한 인품과 굳센 지조, 절개 등으로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며 비유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탐매’ 14수 중 6수를 발췌하여 작품의 6개부분에 김시습의 내면세계와 함께 자연 속에 피어난 매화의 다양한 모습을 현대적 음악구조와 한국적인 색채를 접목하여 독창적으로 표출하여 보았다.

이것만은 꼭!  
매화를 통해 자연과 자신을 비추어보았던 '탐매' 속 김시습의 내면세계를 이 작품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감상해 보세요.

**창제**  
국악관현악을 위한 <Sinfonietta No.1>  
<Sinfonietta No.1> for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작곡신조 \_\_\_\_\_  
장르의 벽을 넘어서!

프로필 \_\_\_\_\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 작곡전공 졸업  
2002년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의 최우수그림책 <노란우산> 작곡  
2003년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 부문 수상  
2004년 KBS 국악대상 작곡 및 지휘 부문 수상  
2012년 에그린뮤지컬어워드 아동청소년 부문 음악상 수상  
작곡마당 및 토포방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작곡 배경 \_\_\_\_\_  
국악관현악을 위한 'Symphony'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길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작품으로 길 찾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작품 해설 \_\_\_\_\_  
국악관현악을 위한 <Sinfonietta No.1>은 서양의 구조주의 작곡법을 국악관현악에 맞게 적용하려고 한 작품이며, 오케스트라 음악의 정점에 있는 Symphony를 국악관현악으로 구현하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은 Symphony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 악구와 악구 사이의 관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 등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국악관현악의 성격에 적절한 구성 방법을 만들어 보았다.

이것만은 꼭!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교향곡은 어떤 느낌일지 감상해 보세요.

**창제**  
7인의 생황주자(奏者)를 위한 국악관현악 '균(均)'  
For 7 Shenghwang Players and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Tune'

작곡신조 \_\_\_\_\_  
창작의 미래는 작곡가에게 달려있다

프로필 \_\_\_\_\_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원 작곡 석사 및 지휘과정 수료  
1996년~2007년 경기도립 국악단 대금 수석 역임  
국립국악원 창작관현악 공모 당선  
한국방송공사 주최 KBS창작관현악작곡 공모 최우수상 수상  
2014년 '한일 국제교류 음악회' 기획, '신악회' 제정 국악작곡상 수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작곡 배경 \_\_\_\_\_  
국악관현악에 연주되는 악기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이는 악기의 주법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연주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그 예가 생황이다. 생황주자의 부족으로 피리주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황은 국악관현악의 필수악기이므로 대금, 피리와 같은 전문 연주자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작곡하였다.

작품 해설 \_\_\_\_\_  
본인은 창작 국악관현악에 있어서 전통악기만으로도 무한한 울림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악기들을 곡에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편종, 편경, 방황과 운라 등인데, 이 악기들을 편성하여 선율의 진행을 더욱 유연하게 하였고, 더불어 생황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금속성의 악기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가야금을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구분하여 현악기에서 나오는 음향을 다양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선보이려 하였고, 거문고 술대의 빠른 마찰에 의해 나타나는 배음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음을 내는 생황과의 미묘한 조화를 그려 보았다.

이것만은 꼭!  
기존의 국악관현악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국악기의 새롭고 웅장한 소리를 감상해 보세요.

**창제**  
ODYSSEY - 긴 여행  
ODYSSEY

작곡신조 \_\_\_\_\_  
이미지의 현실화

프로필 \_\_\_\_\_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타악그룹 '푸리' 활동  
NHK 다큐멘터리 '바람의 소리' 주인공 출연 (한국의 정악 소개)  
2012년 월드뮤직 콘서트 '신한악'이 일본의 큰 호평  
'오사카를 빛낸 30인' 선정  
'신한악'을 재구성, 한국에서 '산타'라는 팀으로 활동

작곡 배경 \_\_\_\_\_  
먼 외국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고향생각이 날 때가 있다. ODYSSEY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풍수를 그리워하며 작곡한 것이다. 계절동포로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해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았다.

작품 해설 \_\_\_\_\_  
민영치의 자작곡 'ODYSSEY-긴여행'은 자신의 외국활동을 통해 외국에서 국악(한국음악)이란 우리음악이 아닌 단지 외국 음악의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어떻게 하면 국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 그것만을 생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민영치가 국악 활동을 시작한 20대, 그 당시부터 변하지 않는 연주이념이 있다. "국악을 멋지게! 재미있게!"라는 것인데, 이 곡에서는 그러한 이념이 곳곳에 꾸며져 있고, 이념이 민영치가 스스로 협연하는 모습에서도 그 이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은 꼭!  
짧은 시간이지만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창제**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슬픔의 강'  
'River of Sorrow' Gayagum and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작곡신조 \_\_\_\_\_  
작곡가는 땅의 울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프로필 \_\_\_\_\_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2000년 스포츠조선 주최 뮤지컬작곡 대상 수상  
2002년 KBS 국악작곡 대상 수상  
2004년 소리마당 주최 '한국음악을 이끄는 10인' 선정  
2007년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2014년 2013 아리랑 뮤지컬 작곡 중(신시킴퍼니)

작곡 배경 \_\_\_\_\_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구성된 이 곡은 2010년에 구상되었던 곡으로, 슬픔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그리고자 한 곡이었다. 그래서 곡 제목도 '슬픔의 강'으로 지었고 인젠기는 완성하고자 하였다. 올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는데, 이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이 협주곡을 완성하게 되었다.

작품 해설 \_\_\_\_\_  
이 곡은 역사의 동기, 슬픔의 동기, 희망의 동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른 동기가 서로 얽히면서 복잡한 갈등과 슬픔을 음악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통적인 음악적 소재는 '대상화' 되기보다는 '내면화' 되어 있어 전통음악이 역사와 현실을 담은 적극적인 소재로서 형상화 되고 있다. 음악 양식적으로는 서구의 현대적 음악양식과 화성, 대위법적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곡의 후반부는 전통적인 '중모리' 장단을 기반으로 땅자의 한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것만은 꼭!  
관현악과 독주 가야금 사이에 오가는 적극적인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창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Where Do We Come From Where Are We Going  
for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작곡신조 \_\_\_\_\_  
영원한 현역

프로필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맨해튼 음악학교 석사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작곡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작곡 배경 \_\_\_\_\_  
삶에 대한 의문점 즉, 아름다운 원천을 자연에서 가져와 작곡가 고유의 작곡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작품 해설 \_\_\_\_\_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의 삶은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후자는 말한다. 작곡가는 이에 대한 목적이인 '아름다움'을 자연에서 가져와 나름의 음악적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세월이라는 기자의 시간성은 사계절에 비유되었고, '네 번째 봄', '소나무', '억새풀 피는 가을', '질화로' 라는 4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다.  
첫 악장은 천안함 폭침 후 네 번째 해의 봄에 세월호 참사로 우리 가슴을 더욱 짓누르던 '가슴 속 진한 아픈 마음의 노래'가 담겨있다. '소나무'에는 삶의 굴곡이 여름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무 소리로 묘사되었다. 또한 우리가 쫓는 환상과도 같은 이상은 아름다운 무지개의 모습에 비유되어 대금 독주와 함께 아련하고 지속적인 화음으로 등장한다. 가을바람에 넘실거리는 은빛 찬란한 억새풀은 '무리지움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고, 겨울을 암시하는 '질화로'는 그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내뿜는 새파란 불꽃을 통해 우리 삶이 추구하는 '사랑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만은 꼭!  
계절을 상징하는 각 악장의 심상과 묘사를 상상하며 감상해 보세요.